東亞日報

會長 金相萬
發行人 金聖悅
編輯人 權五琦
印刷人 崔俊喆
編輯局長 李埰柱

서울鍾路區世宗路139(우110)
交換(代) 733-5221, 5231
編輯局 733-6103, 6104
廣告局 733-6107, 6108
配達事故 733-6105, 6106
購讀申請 734-8806
出版局 文化센터 783-5111, 5231
購讀料 月定 2,700원 1部 13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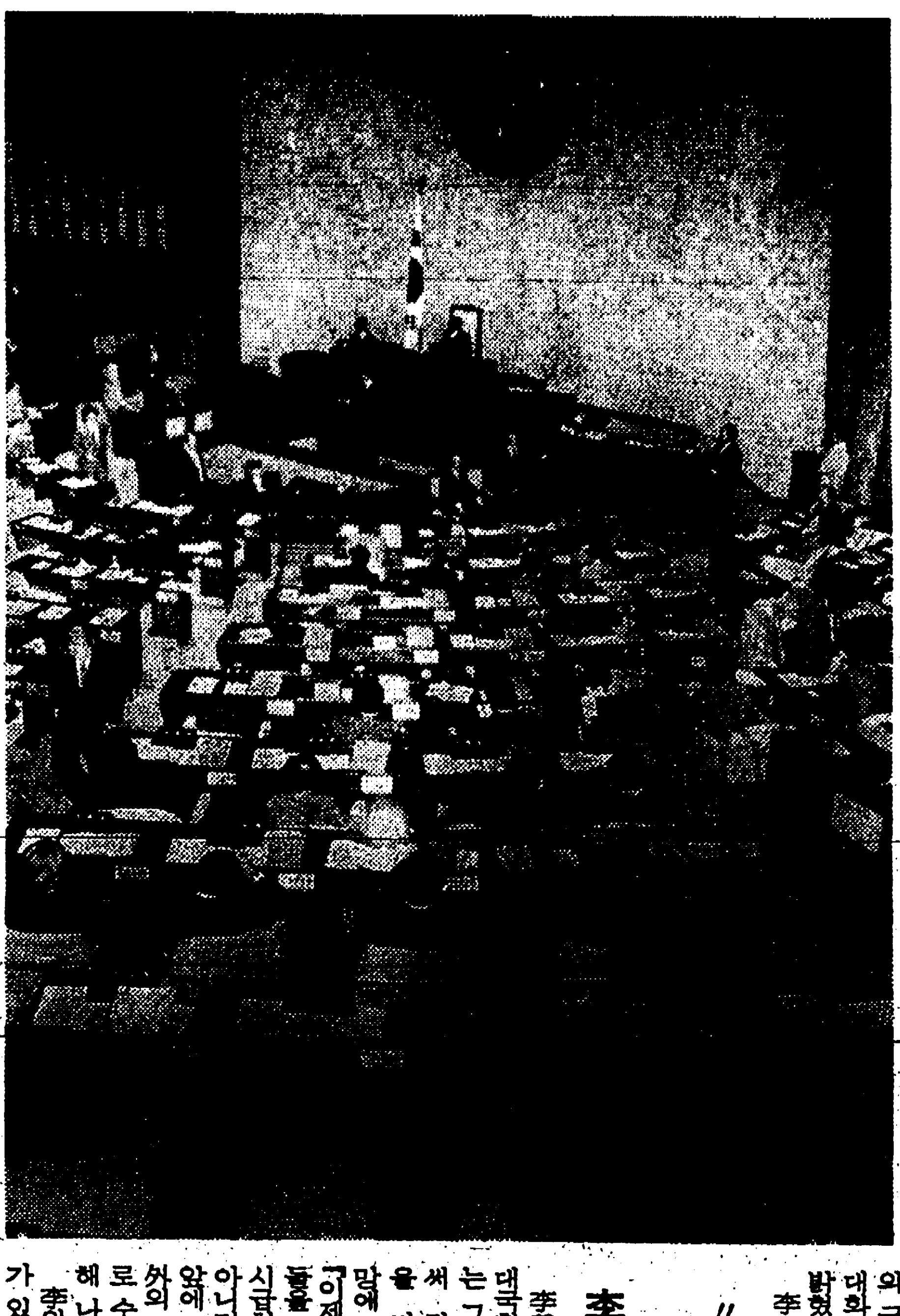
本報는 新聞倫理綱領및 그 實踐要綱을 遵守한다.

12대國會 開院

任期시작 33일만에야 院구성

議長에 李載瀅씨 선출

副議長엔 崔永喆·金祿永씨



제12대 국회가 13일 정식출범했다. 국회는 이날오전10시 국회개원을위한 제125회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에 李載瀅(民正) 부의장에 崔永喆(民正) 金祿永의원(新民)을 각각 선출, 院구성을 마쳤다. 국회는 이어 이날오후2시 본회의를 열고 개원식을 가졌다.

〈3·5면에 관련기사〉

이날 개원식에는 全斗煥대통령이 참석, 치사를 했으며 兪泰興대법원장, 盧信永국무총리서리를 비롯한 3부요인, 駐韓외교사절및 각계대표등 6백여명이 참석했다.

개원식에서 의원들은 국회법25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것」을 선서했다. 최연장자인 李載瀅의원사회로 진행된 이날오전2번원기의 국회의장선출투표에서 李載瀅의원(民正)이 재석2백72명(사회자 불포함)중 2백30표를 얻어 당선됐다.

崔永喆의원은 재석 2백73명중 2백32표를, 金祿永의원은 재석2백72명중 2백35표를 얻어 부의장에 당선됐다.

12대국회의 의원총수는 2백76명이며 정당별 의석분포는 이날 현재 民正黨 1백48명 新民黨 1백3명 국민당20명 民韓黨3명 무소속2명으로 民正 新民 국민3당만 원내교섭단체를 이루고있다.

12대국회는 지난 2월12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제1야당으로 등장한 新民黨이 개원에 앞서 金大中씨의 사면복권등 선결정치현안을 제기, 與野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바람에 임기개시(4월11일) 33일만에 열리게된 것이다.

이날 개원된 12대국회는 임기중인 88년에 평화적정권교체등 중요한 정치일정을 앞두고 있고 이와관련, 民正黨은 현행대통령간선제의 고수등 호헌결의가확고한반면, 新民黨등 야권은 대통령직선제를 위한 개헌을 요구하고 있어 초반부터 與野간에 팽팽한 정치적대립상을 드러내고 있다.

뿐만아니라 新民黨이 총선때부터 제기한 대통령직선제 개헌 光州사태문제등 정치현안을놓고 강력한 對與정치공세를 벌일것으로예상돼 적지않은 파란이일것으로보인다.

12대국회개원에 즈음, 民正黨의 李鍾贊총무는 이날 국회운영의 기조를 합리성과 합법성에 바탕을두어 與野간의 극한대립을 초래하지않는 대화분위기조성에 두겠다고 밝혔다.

李총무는 이날 개원에 앞서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안정속에 계속적인 개혁을 바라는 것으로 보고 11대국회에서 이룩했던 전통을 승계발전시키며 △도덕성에바탕을 둔 청렴정치구현△개방적이고 활달한 대화정치△건전한 소수의견존중 △극한투쟁이나 원내폭력지양등에 두겠다고 밝혔다.

新民黨의 金東英총무는 개원국회에서 민주화환경의 기본을 개선하기위해 국회법 言基法 集示法 노사관계법등의 개폐와 복권과 선거관계인채에 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

金총무는 개원국회에서 新民黨은 개헌등 국정운영의 기본구상을 전부 제시하고 과거失政을 검증함과 동시에 民正黨의 民主化의지를 타진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히고 그러나 사안의 완급을 고려, 당장 해결이 가능하지않은 문제는 「民主裁定」의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풀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당의 金鍾采총무는 「그늘진곳에서 허덕이는 어려운 서민들의 民生문제해결을 위해 국민당뿐아니라 2백76명 모든 의원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金총무는 12대국회는 우리 정치사상 가장 중요한 국회가 될것이기 때문에 與野가 모든것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야 할것이라고말했다.

"정치懸案 民意대로 解決"

李議長 開會辭

李載瀅국회의장은 13일 12대국회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그동안 開院을 늦춤으로써 정치적 영역에 많은 것을 기대하고있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치 못했다」면서 「이제 국정의 산적한 안건들을 지혜와 역량을 다해 시급히 처결해 나가야 할뿐 아니라 그동안 누누이 국민앞에 공언한 바대로 모든 場外의 정치적 현안들을 場內로 수렴해서 民意대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李의장은 또 「국회에 여야가 있고 소속정당과 교섭단체를 달리하며 또 의원각자의 정치적소신과 견해가 상이하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존권을 보위하고 조국과 민족의 융성 번영을 염원하며 이를 이룩하고자한는점에서 그 軌를 같이한다」며 「허심탄회하게 흉금을 털어놓고 논의한다면 어떤 쟁점도 끝내 타결될것」이라고 강조했다.

李의장은 「지난11대국회는 과거 어느때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주적 의정을 능률적으로 운영하는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되지만 국민적 시각에서는 반드시 그같은 긍정적 관점만 있는 것도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면서 「12대국회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국가적 과제를 슬기롭게 처결해야할 사명을 짊어지고있음을 통감하면서 그럴수록 더욱 국회다운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全大統領 國會開院式 치사

"모든問題 院內對話로 해결"

12代任期는 國家운명의 큰轉機

全대통령

全斗煥대통령은 13일오후 제12대국회개원식 치사를 통해 「모든 문제가 議事堂안에서 슬기롭게 논의되고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하며 또 무엇이든지 私心없는 대화로 나선다면 어떤문제도 온당하게 풀려질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 「의원여러분이 국민의 소망에 부응하여 대화와 협상의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국민에게 자신과 희망을 주고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펼쳐나가는 정치를 펼쳐나갈것을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급변하는 주변정세를 직시하면서 반드시 순탄하지만은 않을 국가와 민족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길은 이 의사당안에서 민족의 창조력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데서 열릴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그러기위해 필요한것은 누구보다도 의원여러분이 동의하시리라고 믿지만 곧 대화정치의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의회제도가 생긴 역사적 연원도 대화에 있으며 국민의 욕구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역설했다.

全대통령은 「여러분의 임기에 해당하는 앞으로 4년은 국가와 민족운명에 있어 큰 轉機가 될것」이라면서 「올림픽의 성공적인개최, 대통령임기만료에 따른 평화적 정부이양의 과제, 南北관계의 주도, 전쟁재발방지, 선진도약의 염원성취등의 막중한 일들로 앞으로 걸어야할 4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지나침이 없다」고말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산적한 이러한 과제들은 몇마디의 말로 간단히 해결할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만 그 가장 중요한 전제는 곧 안정과 단합」이라고 강조하면서 「밖으로부터는 전쟁의 마수가 뻗쳐오지않고 안으로는 모든 국민의 저력이 흐트러짐없이 결집되야 모든과제의 해결이 가능해질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안정의 토대를 보다 확고하게, 그리고 보다 굳건하게 쌓아가는 무대가 바로 이곳 의사당」이라면서 「우리국회가 국민의 저력을 모으고 국력을 결집하는 굳건한 전당이 되어야하겠다」고 말했다.

敵의 攻擊양상 철저히 파악

全大統領, 휴일 海兵部隊등 시찰

全斗煥대통령은 일요일인 12일 오전과 오후 약 5시간에 걸쳐 서부전선 최전방에 있는 해병부대를 예고없이 시찰, 경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한뒤 京畿道 江華郡廳에 들러 군정을 보고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오전9시10분 靑瓦臺를 떠난 全대통령은 10시40분 해병부대에 도착, 부대장으로부터 부대현황을보고받고 「예상되는 적의 공격양상을 미리 철저히 파악하여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江華郡廳을 방문, 군정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선진국의 경험으로 보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기 직전인 1인당 국민소득 2천~3천달러 사이가 국민적 욕구가 가장 많이 표출되는 시기이며 따라서 국민소득 2천달러대열에 들어선우리의 경우 지금부터 국민들의 욕구와 요구사항이 각분야에서 많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이러한 많은 욕구는 일시에 해결될수 없는만큼 공직자들은 앞으로 이같은 입장을 국민들에게잘이해시키고납득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말했다.

游休地制 7월 첫實施

濟州부터 우선 6大도시는 年內實態조사

通告 3개월내 開發·處分계획서 제출義務化

민간소유의 놀리고있는 땅을 개발이용토록 행정력으로 촉진하는 游休地제도가 오는 7월 濟州道지역에서 첫 실시되며 이어 서울을 비롯한 전국대도시에 확대실시된다.

건설부는 작년12월부터 지난2월까지 濟州道전역을 대상으로 유휴지 실태조사를실시, 2백28건 72만1천평방m(21만6천3백평)가 제대로 이용되지않은채 놀리고있는 땅임을 밝혀내고 우선 도시계획구역내에있는 83건 58만평방m(17만4천평)를 유휴지로 지정, 개발및 처분을 강제키로하고 이를 해당토지소유주에게 예정통지했다.

건설부는 이달말까지 소유주의 의견을 접수, 다음달에 있을 국토이용계획심의회에서 유휴지를 최종확정, 7월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유휴지로 통고되면 토지소유주는 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해당토지의 개발 이용 또는 처분계획서를 시도에 제출해야하며 이를 어기거나 시도지사의 계획변경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국가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공공목적을 위해 개발이용하게 된다.

건설부는 濟州지역을 시작으로 올해안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을 비롯, 釜山 大邱 仁川 光州 大田등 전국 6대도시지역에 대해서도 유휴지실태조사를 실시,토지거래신고제와 함께 유휴지조치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日社會黨대표단 20일 北韓방문

金正日과 만나 南北對話 眞意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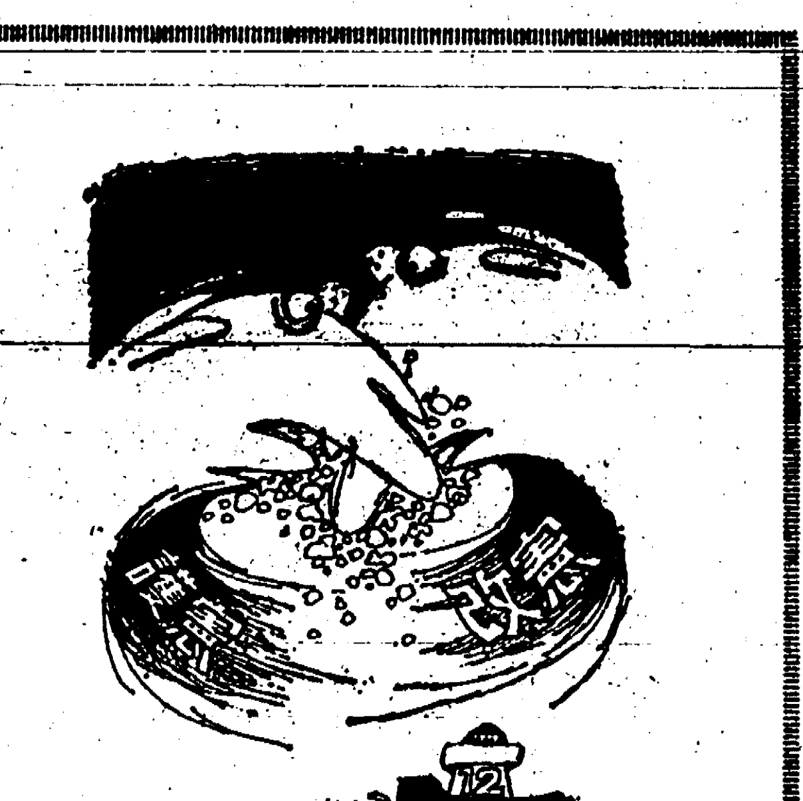
【東京=林裕源특파원】日本社會黨의 「타나베」(田邊誠)서기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오는20~25일 北韓을 방문한다.

작년9월 「이시바시」(石橋政嗣)위원장이 北韓을 방문한이래 韓半島의 긴장완화를 위한 사회당의 역할을 모색해온 사회당은 이번「타나베」서기장의 北韓방문을 통해 南北대화에 대한 北韓의 진의를 타진, 이를 사회당의 韓半島정책에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당방문단은 金正日北韓노동당정치국상무위원겸서기와의 회담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현되면 金正日과 西方측 방문단과의 첫 회담이 된다는 것이다.

東亞戲評

白寅洙



「12代」氣象圖

無影塔

12대國會, 우여곡절끝에 開院. 門 활짝 열고 4천만 民意대변 直言을.

★

「미그23機」 10대, 北韓 配置說. 美 휴즈 500MD헬機와 호성편대 만들려고?

★

美대의관의 高麗靑磁 사라졌다고. 버터냄새 역겨워 도망갔던 아닐테고.

★

「이란」, 「聖戰보다 平和」 절규 反「호메이니」 데모. 5년전쟁 싫증도 날만한 때.

횡설수설

고려청자나 이조백자가 갖는 정교하고도 세밀한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너무많은 찬탄과 경탄이 있어온 터여서 이제 그것을 다시 되풀이하는것 자체가 쑥스럽다. 특히 12세기중엽에 이루어졌을것으로 추정되는 고려청자의 상감(象嵌)기법 개발은 고려청자가 갖는 그 비색과 함께 선조들의 예술적開眼에 대한 놀라움을 갖게한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으면 드디어 멋없는 情으로까지 사랑을 이끌어 간다◆한국문화에 대한 좋은 이해자였던 일본의 민예연구가 「야나기」(柳宗悅)도 우리 도자기의 특징에 대해 퍽 재미있는 말을 하고 있다. 「중국것은 우리가 기다리거나 기다리지 않거나 간에 언제든지 저편에서 다가온다. 그러나 한국것은 이쪽에서 찾거나 찾지 않거나간에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손님이 왔을 경우 明의 靑華白磁는 식사를 즐겁게 해주지만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나 오래살 밤에서는 한국 도자기가 더 친근감을 주다는 설명이다◆고려자기는 여성적이고 韻趣가 있으며 이조자기에는 폭이 있고 직선적이면서도 대범하고 분방한 맛이 있다. 그러나 그것들을 만든는 비법들은 기록이 드물다. 고려청자를 이야기한 「고려도경」에도 그에 대한 언급이 없어 예술의 당대성이나 시한성이 갖는 의미도 생각하게 만든는데 한 전문가는 현존하는 고려청자의 수를 대략 3천~4천점으로 추정한다. 국보는 19점 보물은 11점이다◆그런데 46년 한국쪽에서 張利郁씨를 통해 「트루만」대통령에게헌납했던 한국감사표시로선물한9배년전 고려청자가 없어졌다는 소식은 섭섭하다못해 무척 섭섭하다. 이것을 확인한 사람이 한때 우리 정치를 지켜보는 자리에 있었고 한국 고미술품수집가로도 알려진 그레고리 핸더슨씨라는 것도 흥미있었다. 이번에 사라진 고려청병은 오직 5개의 同種이 있을 뿐이라는 점을 생각할때 안타까움은 더한다.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
대한장학보험
보험 상담은
752-6184
대한생명

5월의 신제품
소음지수 0!
대우 IC분리형에어콘
●압축기를 집밖에 따로 설치해 소음을 제거
●온도, 풍향, 작동시간을 자동조절하는 IC리모콘채용

4 6평형
DSA-221K/L
권장소비자가격 ₩614,000
●전화주문
753-8282 (소비자상담실)
대우전자

자랑스런 한국인, 세계 속의 「스텔라」

고급승용차의 판도를 바꿔놓은 카나다型「스텔라 CX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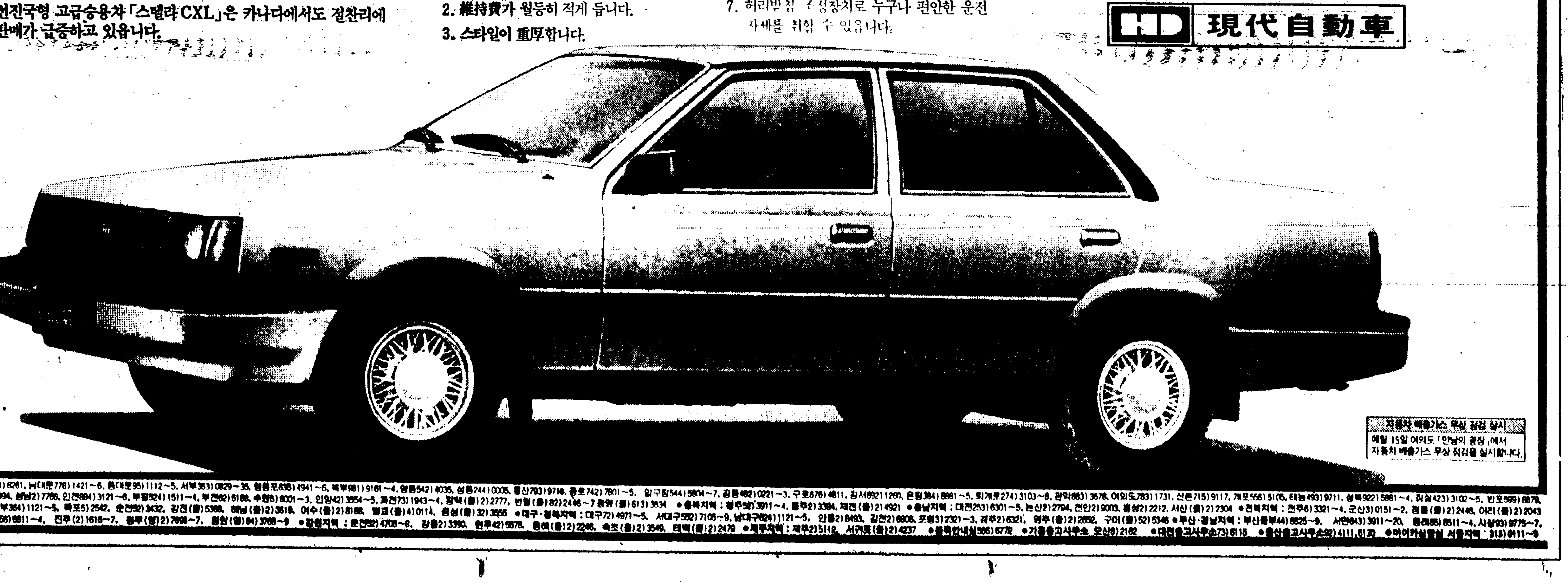
重厚하고 경제적인 「스텔라 CXL」 輸出도 급증하고 있읍니다.

품위, 성능, 안전성, 승차감, 경제성에서 先進国型 고급승용차의 眞髓를 유감없이 보여준 「스텔라 CXL」
타보신 분들은 「스텔라 CXL」의 뛰어난 성능과 안락하고 차분한 승차감에 만족합니다.
선진국형 고급승용차 「스텔라 CXL」은 카나다에서도 절찬리에 판매가 급증하고 있읍니다.

「스텔라 CXL」의 우수성
1. 美国의 安全度 시험에 합격한 충격흡수형 우레탄 범퍼로 안전성이 높습니다.
2. 維持費가 월등히 적게 듭니다.
3. 스타일이 重厚합니다.
4. 최고급 「모케트 시트」로 실내가 안락합니다.
5. 5단 변속기로 乗車感이 쾌적합니다.
6. 마감처리가 精巧합니다.
7. 허리받침 조정장치로 누구나 편안한 운전 자세를 취할 수 있읍니다.

輸出하는 車와 市販하는 車는 品質이 同一합니다.

STELLAR CXL
HD 現代自動車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 점검 실시
매월 15일 여의도 「만남의 광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 점검을 실시합니다.